

JULY
2022

M

LUXURY



Pomellato

MILANO 1967

ICONICA COLLECTION

SUMMER SPECIAL



Beatrice Borromeo, Como 2021



BUCCELLATI

MILANO DAL 1919

Blossoms Collection

<LUXURY M>은 2016년 창간 이래 최고의 프리미엄 매거진 <LUXURY>의
기획과 진행으로 <매일경제>의 주요 지국과 <LUXURY> 독립 배본망을 통해 배포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잇는 시티 라이프스타일 미디어입니다.

Contents

SPECIAL

SUMMER EDITION

08

IT'S IN SEASON
COOL AND SHINY
HOTEL VACANCE

04 HEAD TO TOE

이달에 알아야 할 정보와 트렌드

26 INNOVATOR

여가·취미 플랫폼 프리임 이수열 대표

28 PREVIEW

각 분야 에디터들이 꼽은 이달의 신제품

32 REVIEW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페이스 미스트

34 DESIGN SPOT

2022년 새로 생긴 피자 숍



POMELLATO ICONICA COLLECTION

포멜라토의 5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이코니카'
컬렉션은 밀라네제 주얼리를 대표하는 컬렉션
이다. 포멜라토는 1967년 밀라노에서 설립했으
며, 획기적인 프레타포르테 콘셉트의 주얼리로
보수적인 주얼리 세계에 혁신을 일으켰다. '이코
니카' 컬렉션은 볼륨을 살린 감각적 디자인과 섬
세한 스톤 세팅을 통해 우수한 크래프트맨십과
모던 럭셔리리의 정수를 선보이고 있다.

2022년 7월호 통권 제69호
2022년 6월 28일 발행(매월 발행)
2016년 10월 12일에 등록, 등록번호 서울 중. 라-00650
발행 공급처 (주)디자인하우스(02-2275-6151)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72
필름 출력 (주)에이디코아(02-323-6493)
인쇄처 M-print(031-8071-0960)
이 잡지의 일부 기사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LUXURY.DESIGNHOUSE.CO.KR

LUXURY EDITORS

EDITORIAL

EDITOR IN CHIEF

윤정은 Jungeun Yoon · yoon29@design.co.kr

FASHION EDITOR

홍혜선 Hyesun Hong · hhs@design.co.kr

최윤정 Yoonjung Choi · yj.choi@design.co.kr

BEAUTY EDITOR

이지형 Jihyung Lee · jh.lee@design.co.kr

정두민 Doomin Jeong · dmj@design.co.kr

LIVING & FEATURES EDITOR

김수진 수석 기자 Sujin Kim · jin@design.co.kr

안서경 Seogyong Ahn · seo@design.co.kr

한동은 Dongeun Han · dehan@design.co.kr

ART DIRECTOR

손익원 Ikweon Sohn · bart@design.co.kr

DESIGNER

홍수연 Sooyoun Hong · syhong@design.co.kr

김보성 Bosung Kim · today17@design.co.kr

PHOTO DIRECTOR

이우경 Wookyoung Lee · watt@design.co.kr

PHOTOGRAPHER

이기태 · 이경옥 · 이창화 · 김은지 · 박성연

STONE STUDIO

염정훈 Junghoon Yum · 황인우 Inwoo Hwang

COPYREAD

전남희 Namhee Jeon

ADVERTISING

DIRECTOR

이경호 Kyongho Lee · paradise@design.co.kr

CHIEF MANAGER

김수진 Soojin Kim · kimssoojin@design.co.kr

SENIOR MANAGER

정혜림 Hyerim Jeong · hr.jeong@design.co.kr

ASSISTANT MANAGER

도현준 Hyunjoon Do · gihun0604@design.co.kr

DISTRIBUTION MANAGER

송은우 Eunwoo Song · ewsong@design.co.kr

DEPUTY MANAGER

이건태 Guntai Lee · guntai77@design.co.kr

DESIGN HOUSE INC.

DIRECTOR OF DESIGN BUSINESS

이민형 디자인프레스(주) 대표 겸직 lucy@design.co.kr

DIRECTOR OF EXHIBIT BUSINESS

조상연 이사 Sangyeon Cho · csy@design.co.kr

DIRECTOR OF BUSINESS STRATEGY

이영임 상무 Youngim Lee · yilee@design.co.kr

LEGAL ADVISOR

김영철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KCL)

DIVISION LEADER

김은령 부사장 exlibris@design.co.kr

PRESIDENT·PUBLISHER

이영혜 대표이사·발행인

SWAROVSKI



LET'S GO
TO THE BEACH



LOEWE
'폴라 이비자' 컬렉션을 통해 선보인
야자수 그림과 로고 패턴의 테리 타월.
3213-2275

LOUIS VUITTON
줄무늬와 모노그램 패턴이 어우러진
비치 타월 3432-1854

HERMÈS
파라솔을 프린트한 면 소재 비치 타월.
542-6622 (CYJ)

PHOTOGRAPHER 엄정환

Header

EDITOR 김수진(KSJ)·홍혜선(HHS)·이지형(LJH)·안서경(ASG)
최윤정(CYJ)·정두민(JDM)·한동은(HDE)

NEW LIPS

GIVENCHY 리퀴드 립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로즈 퍼펙트 리퀴드 밤'. 입술에 닿는 즉시 공
기처럼 가볍게 스며들고, 입술을 즉각적으로 도
통하게 만들어준다. 누드 톤부터 레드 톤까지 6가
지 셰이드로 선보인다. 080-801-9500

CHANEL 완벽한 입술을 완성해줄 '루쥬 알뤼
르 렉스트레'를 선보인다. 오일로 코팅한 고농축
피그먼트 덕에 선명하게 발색되며, 식물성 왁스
성분이 입술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꿔준다. 샤
넬 립스틱 최초로 리필 가능한 카트리지를 적용
했다. 080-332-2700 (LJH)



GIVENCHY



CHANEL

2022 밀라노 한국 공예전

‘살로네 델 모빌레Salone Del Mobile’ 기간 동안 우리 공예의 아름다움을 선보인 <밀라노 한국 공예전>이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이탈리아 디자이너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다시, 땅의 기초로부터’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는 땅의 소산물을 재료로 삼아 작업을 이어가는 공예 작가 22명이 참여해 총 100여 점의 작품을 구성했다. 유기장 이형근 작가와 알레시 디자이너 마리오 트리마르키Mario Trimarchi가 함께 완성한 오브제를 포함해 2개의 합작품을 공개했다. (ASG)

이형근-마리오 트리마르키,
‘Altar for Offering to the Gods’



현대 모터스튜디오 스나안 파크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현대 모터스튜디오 스나안 파크’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스나안 파크 쇼핑몰 2층에 약 446㎡(약 135평) 규모로 오픈한 공간에는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모빌리티 비전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특히 ‘클린 모빌리티’를 콘셉트로 내부 인테리어의 작은 부분까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디지털 전시 방식을 채택해 불필요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게 설계한 것이 특징. 메인 전시 공간에는 현대자동차 EV 콘셉트 카 ‘프로페시Prophecy’를 배치했으며, 벽면부터 천장까지 스튜디오 전체를 LED 미디어 월로 채웠다. (KS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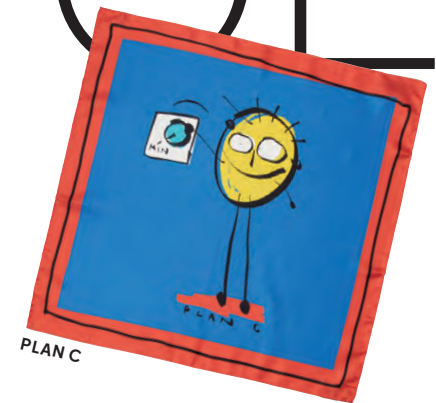
SUMMER SUSTAINABLE

GANNI 가니가 혁신적 소재 연구 개발 프로그램 ‘패브릭 오브 더 퓨처’를 발표하면서 3가지 새로운 패브릭인 마일로™와 스템, 서쿨로스®를 공개했다. 스타트업 기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을 이어가려는 목적이다. 6911-0734

PLAN C 에너지 절약의 메시지를 담은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 플랜 씨. 사용하지 않는 스위치를 끄거나 온도를 조절하고 있는 플랜 씨의 대표 모티프 ‘비양카’와 ‘필리’의 프린트가 눈길을 끈다. 오래된 재고 원단을 재활용해 만든 것도 돋보인다. 6905-3539

PATAGONIA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파타고니아가 수명을 다한 티셔츠를 새로운 티셔츠로 되살리는 자체 의류 순환 공정 ‘테이크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의류 생산에 새로운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544-1876 (HHS)

toTore



BODY ESSENTIALS

PHOTOGRAPHER 임정호

ORIBE

사막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핀 꽃의 모습을 향으로 표현한 '데저트랜드' 보디 크림. 깊은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준다. 1644-4490

PARNELL

붉고 민감해진 보디 피부의 트러블을 진정시키고 촉촉한 수분을 공급하는 '시카마누 약산성 바디 미스트'는 각질 케어에도 효과적이다. 모공에 쌓인 피지를 자극 없이 세정한다. 1661-5634



TAMBURINS

자연에서 내리는 비에서 영감 받은 '샤워리 바디 워시 비가리코'를 신제품으로 선보인다. 수분 공급에 뛰어난 시어버터를 함유해 피부를 보호하며, 은은한 잔향은 덩이다. 1644-1246



DRUNK ELEPHANT™ by SEPHORA

식물성 버터와 오일을 고농축한 '원더와일드 미라클 버터' 보습 밤.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해 건조한 팔꿈치나 뒤꿈치에 사용하면 좋다. 1670-4234 (JDM)

프로젝트 목욕탕

자수정이 박힌 레트로 분위기의 목욕탕에서 스트리트 문화와 예술 전시를 즐길 수 있는 팝업 프로젝트가 열린다. 아라리오 뮤지엄 제주가 기획하고, 아트 토이 플랫폼 '소프트 코너'와 한정판 스니커즈를 선보이는 이태원의 편집매장 '칩스', 유튜브 와디의 스니커즈 숍 애글릿까지 세 주회사가 이끄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브랜드의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팝업 행사 기간 동안 사용할 벤치와 매대를 문승지 디자이너가 만든 점도 눈길을 끈다. 7월 17일까지. 제주시 삼도이동 1261-4, @mytjeju (ASG)



SOLO SHOW

<I NEED YOU> 북극곰, 펭귄, 코끼리 등 동물들이 사람인 것처럼 트램을 타고 도시를 배회한다. 언뜻 보면 평범한 도시 풍경이지만 'Stop Pollution' 등 환경 포스터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작가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정성준 작가는 인간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재치 있게 표현하는 회화 작가로, 파리 루이 비통 재단에서 대표 시리즈 '트랩' 작품을 소장해 주목받았다. 22점의 신작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개인전은 갤러리조은에서 7월 8일까지 진행된다.



"Today is My Special Day"



"Bubbly-a Yellow Boat-Gold"

<THE UNIVERSE IN THE GOLDEN EYE>

웃는 표정에 동그란 얼굴의 '동구리'는 작가 권기수를 대표하는 캐릭터다. 작가는 베네치아 비엔날레, 일본 모리 미술관 등 세계를 무대로 매체를 넘나드는 작품 세계를 선보여왔다. 동양의 전통적 회화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가는 화폭 위에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가면을 쓴 동구리를 등장시킨다. 이번 개인전에서 주목할 재료는 금이다. 금이 내포한 권력, 부, 신성함 등의 상징성을 배제하고 작가 고유의 회화 언어로 전환한 신작을 포함해 회화 2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아뜰리에 아키. (HDE)

CELEBRITIES AT THE EVENT



칸 영화제에서 모델 겸 배우
나오미 캠벨을 포착했다.
알렉산더 맥퀸의 해체주의적
셔츠 드레스와 '포-링' 백,
캐주얼한 하이탑 스니커즈를
믹스 매치한 점이 돋보인다.



이던 & 현아 커플이 나란히 등장한
이곳은 리모와의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라벤더 & 시트론' 컬렉션의 론칭을
축하하는 자리로, 두 사람은 행사 콘셉트에 맞게
컬러풀한 프린트 의상을 착용했다.



제75회 칸 영화제 디너 파티에
모습을 드러낸 배우 다이앤 크루거.
가슴 라인이 아절하게 파인 블레이저와
미니스커트 모두 미우 미우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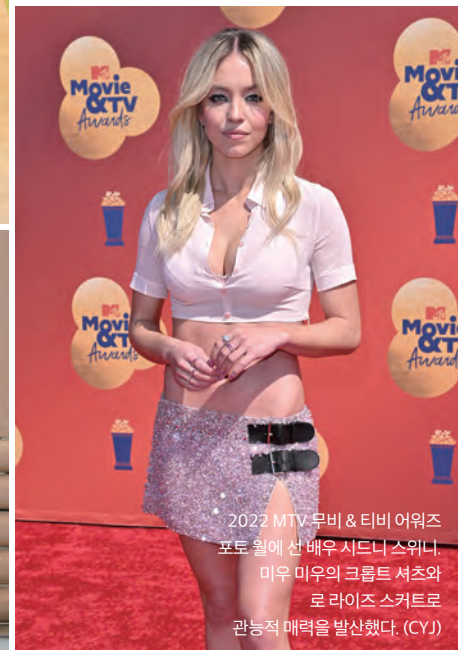


'월드 오브 롤라' 팝업 스토어를 장식한
또 다른 주인공은 배우 나나.
어깨 라인을 드러낸 홀터넥
미니드레스와 흰색 '롤라' 백을 매치해
당당한 자태를 뽐냈다.

버버리의 아이코닉 백 '롤라'를
주제로 한 '월드 오브 롤라' 팝업 스토어.
배우 설인아가 방문해 자리를 빛냈다.



미국 NBC <투데이 쇼>에서 프랑스
브랜드 아미의 커스텀 의상을 착용한
뮤지션 해리 스타일스.



2022 MTV 무비 & 티비 어워즈
포토 콜에 산 배우 시드니 스위리.
미우 미우의 크롭트 셔츠와
로 라이즈 스커트로
관능적 매력을 발산했다. (CYJ)

CAR OF THE MONTH

볼보 XC60 리차지 PREV 신형 'XC60'을 타고 서울 외곽으로 드라이빙을 다녀왔다. 2009년 출시 이후 SUV 트렌드를 이끌며 선풍적 인기를 끈 XC60은 2017년 2세대 모델을 공개한 뒤 지난해 4년 만에 신형 모델을 선보였다. 업그레이드한 친환경 파워트레인과 롱 레인지 배터리를 탑재해 한 번 충전 시 최대 57km까지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며, 최고출력 455마력, 최대 토크 72.3kg·m의 e-모터를 장착했다. 탑승 전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외관. 3D 형태의 아이언 마크



를 통합한 라디에이터 그릴, 넓은 차체를 강조하는 크롬 바 등이 어우러져 좀 더 간결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이다. 도심을 빠져나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해 가속페달을 밟자 묵직한 차체가 경쾌하게 속도를 낸다. 도로에 차량이 늘어 가다 서길 반복할 때면 새로 추가된 '원 페달 드라이브'가 운전의 피로를 덜어준다. '티맵'과 AI 플랫폼 '누구 NUGU', 사용자 취향 기반의 음악 플랫폼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는 혁신 그 자체. 차 안에서 '아리아'를 부르고 요구 사항을 말하면 실내 온도 제어, 목적지 설정, 음악 재생, 날씨와 뉴스 등 정보 탐색 등을 해결해주는데, 정확도가 높아 운전 집중할 수 있었다. 1588-1777 (KSJ)

Summer

뜨거운 태양, 푸른 바다, 붉게 달아오른 대지 등 여름에 마주할 수 있는 자연현상에서 영감 받은 색과 질감으로 이루어진 메이크업 아이템 그리고 여름을 모티프로 한 향기들까지. 오직 여름을 위해, 여름에 탄생한 서머 에디션을 모았다.

EDITOR LEE JIHYUNG PHOTOGRAPHER YUM JUNGHOOON

1 5 폴뢰르 꾸뛰르 디올리비에라

리미티드 에디션 #779 리비에라 황금빛으로 물든 여름 하늘에서 영감 받은 컬러로 이루어진 아이 팔레트. 건강한 느낌을 선사하는 브론즈, 진쑹빛 골드, 벨벳 버건디, 메탈릭 코퍼 4가지로 이루어져 눈가를 태양빛으로 물들인다. 디올.

2 디올 포에버 꾸뛰르 루미나이저 디올리비에라

리미티드 에디션 #001 누드 리비에라 해 질 녘 황홀한 황금빛 색채에서 영감 받은 루미나이징 파우더로, 양 볼에 고급스러운 진쑹빛 광채를 더한다. 야생 팬지꽃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를 하루 종일 촉촉하고 투명하게 가꿔준다. 디올.

3 디올 베르니 디올리비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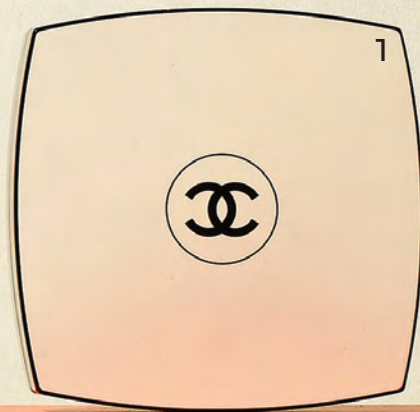
리미티드 에디션 #633 바야데르 손끝에 강렬한 태양빛을 더하는 네일 래커. 작약, 석류꽃 추출물이 네일 표면을 강화하고 바르는 즉시 밀착해 유리알처럼 반짝이는 손끝을 완성한다. 디올.

4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 오일 디올리비에라

리미티드 에디션 #031 피치 글로우 입술을 생기 넘치는 코랄빛으로 물들이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립 오일. 체리 오일을 풍부하게 함유해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효과를 낸다. 디올.



Edition



1 레 베쥬 오버사이즈 헬시 글로우 하이라이팅 파우더

얼굴은 물론 어깨, 데콜테, 팔다리 등에 광채를 더하는 하이라이팅 파우더. 파우더지만 가루가 거의 날리지 않고 피부를 감싸듯 완벽하게 밀착된다. 샤넬.

2 뿌드르 유니베르셀 리브르 로즈 핑크빛이 감도는 파우더로 얼굴 전체에 자연스러운 생기와 활력을 부여한다.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해 하루 종일 피부를 보송하게 유지해준다. 샤넬.

3 레 베쥬 일루미네이팅 오일 온몸에 건강한 윤기를 부여하는 코퍼 골드빛 오일. 부드럽게 스며들며 걸들거나 끈적이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자외선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짝이며 관능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샤넬.

4 르 베르니 썸머 컬렉션 933 캡 코랄 한여름 따사로운 태양빛을 담은 컬러의 네일 래커. 손끝을 생동감 넘치는 코랄빛으로 물들이며 유리알처럼 반짝이는 네일을 완성한다. 샤넬.



1 필로우 토크 멀티 글로우 #로맨스 라이트 실키 파우더를 가득 함유해 어느 각도에서도 빛나는 피부를 완성하는 하이라이터. 은은한 누드 핑크빛 생기를 더하며, 가루가 날리거나 뭉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살롱 킬버리.

2 필로우 토크 립 & 치크 글로우 #컬러 오브 패션 입술과 양 볼을 생기 넘치는 장밋빛으로 물들여줄 멀티 밤. 비즈 왁스와 비타민 E 성분이 촉촉하게 가꿔준다. 살롱 킬버리.

3 썬빔치크 앤 아이 사이드 #레이 양 볼과 눈가에 햇살을 머금은 듯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하는 아이 & 치크 파우더. 미세한 진주 펄이 고급스러운 윤기를 선사한다. 샹테카이.

4 럭셔리 팔레트 필로우 토크 드림즈 한 번 만 발라도 선명하게 발색되고 완벽하게 밀착하는 4구 아이섀도 팔레트. 로즈 골드 펄, 매트 더스키 로즈, 매트 베리 브라운 그리고 시머링 로즈버드까지 4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살롱 킬버리.

5 립 틴트 하이드레이팅 밤 #썬플라워 단 한 번만 발라도 풍부하게 발색되는 립 틴트로, 차분한 느낌의 로즈빛으로 입술을 가득 채운다. 로즈와 체리 추출물이 입술을 하루 종일 촉촉하게 가꿔준다. 샹테카이.

6 립 틴트 하이드레이팅 밤 #마리골드 부드러운 제형이라 거울을 보지 않고도 바를 수 있는 틴티드 립밤. 톤 다운된 브라운 컬러가 얼굴 전체에 차분한 무드를 안겨준다. 서핑에서 영감 받은 네온빛 패키지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 샹테카이.



1 씬머 컬러 컬렉션 시그니처 컬러 아이즈 #116

강렬한 태양의 열기로 달궂진 대지에서 영감을 받은 여름 한정 컬렉션.

매트, 시머, 글리터까지 다양한 텍스처로 이루어진

4구 아이 팔레트로, 우아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스쿠.

2 씬머 언레이티드 블러쉬 듀오 매트 모브 핑크, 골든 쉬어 소프트 핑크

2가지 컬러로 구성된 파우더 블러셔. 초미세 마이크로 피그먼트를 함유해

양 볼을 수채화처럼 맑고 투명하게 물들인다.

파우더지만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는 것도 장점.

아시아 한정 출시로 소장 가치를 더욱 높였다. 나스.

3 맥 컬러 엑세스 젤 펜슬 아이 라이너 #퍼머넌트 베케이션

여름을 겨냥해 새롭게 선보이는 컬러 아이 라이너.

하이브리드 젤 텍스처로 이루어져 한 번에 부드럽게 발리며, 한 번 바르면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밀착력이 우수하다.

톤 다운된 옐로 컬러이며 누구나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다. 맥.

4 맥 컬러 엑세스 젤 펜슬 아이 라이너 #텍 라스트 워터프루프 기능을 갖춰

물과 땀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장점. 로즈빛이 감도는

핑크 컬러로 눈가에 포인트를 더할 수 있다. 맥.





1 와일드스위밍 컬렉션 솔티 앰버 리미티드 코롱 한여름 바다에서 즐기는 수영을 떠올리게 하는 향으로 관능적인 느낌의 앰버, 파출리 노트에 시슬트 노트가 더해져 바다 내음을 전한다. 카르다뭉과 해초가 상쾌한 느낌을 극대화한다. 조 말론 런던.

2 라이트 블루 이탈리아안 러브 뿌르 옴오 드 뚜왈렛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 지중해에서 휴가를 보내는 연인에게 영감 받은 향. 칼라브리안 레몬, 화이트 로즈, 베티베르 등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상쾌하면서도 부드러운 향을 완성한다. 돌체앤가바나.

3 라이브 블루 이탈리아안 러브 뿌르 팜오 드 뚜왈렛 싹싹한 자몽 껍질을 중심으로 우드, 파출리, 캐시미어 향취가 더해지면서 자칫 가벼울 수 있는 향을 입체적으로 바꿔준다. 뿌리는 순간 시원한 바람,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 돌체앤가바나.

4 일리오오 드 뚜왈렛 지중해 연안의 자연에서 영감 받은 향으로 백년초 열매를 시작으로 베르가모트가 이어지며 아이리스, 잰스민으로 부드럽게 마무리된다. 은은하고 산뜻한 향으로 한여름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다. 디티크.

1 해피 쇼파드 레몬 돌치 레몬, 베르가모트의 상큼한 향으로 시작해 진저, 페퍼민트의 톡 쏘는 향이 이어지며 망고, 시더우드로 마무리된다. 레몬빛으로 투명하게 빛나는 보틀이 여름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쇼파드.

2 씨케이원 썸머 데이즈 광활한 길 위에서 즐기는 로드 트립에서 영감 받은 향으로 톡 쏘는 금귤 시트러스 향을 중심으로 아이스 민트 티, 베티베르가 더해져 생동감 넘치는 향을 전한다. 싱그러운 오렌지빛 보틀도 매력적이다. 캘빈클라인.

3 포멜로 시원한 바다, 하얀 모래사장 등 여유로운 여름휴가지를 모티프로 한 향으로 청량한 느낌을 물씬 풍긴다. 신선한 포멜로, 부드럽고도 관능적인 로즈 그리고 베티베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다. 조 러브스.

ASSISTANT 이다희 COOPERATION 나스(6905-3747), 돌체앤가바나(080-564-7700), 디올(080-342-9500),
딥티크(3479-6049), 맥(3440-2782), 샤넬(080-332-2700), 스쿠(3479-1621), 샬롯 틸버리(1644-6862), 샹테카이(517-0902),
쇼파드(080-990-8989), 조 러브스(1644-4490), 조 말론 런던(3440-2750), 캘빈 클라인(080-850-0708)



SPECIAL

It's in Season!

여름을 대표하는 4가지 패션 아이템.

EDITOR HONG HYESUN PHOTOGRAPHER YUM JUNGHOON



ESPADRILLES

여름의 정서는 물론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엿보이는 에스파드리유. 에스파르토 폴로 밀창을 만들면서 시작됐지만, 요즘은 대부분 황마 섬유로 제작한다.

에스파드리유 웨지힐은 돌체앤가바나. 캔버스 소재 어퍼를 적용한 전통적 형태의 에스파드리유는 로렌 랄프 로렌. 로고 프린트 가죽 에스파드리유는 샤넬.

SUMMER HAT

휴양지 분위기를 자아내는 모자를 쓰면 진짜 여름이 왔구나 싶다.

특히 라피아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구현한 모자는

휴양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종 모양의 클로슈 햇부터

편평하고 둥근 크라운과 챙이 있는 보터 햇, 이름처럼 양동이와

비슷한 모양의 버킷 햇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화이트 밴드를 두른 클로슈 햇은 파비아나 필리피.

핑크 리본을 장식한 보터 햇은 헬렌카민스키. 하늘색 버킷 햇은 프라다.



RAFFIA & RATTAN

라피아와 라탄으로 만든 가방은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택이다. 모두 식물의 줄기나 나무에서 얻은 천연 소재로 만드는데, 라피아 소재는 야자수잎에서 나온 섬유로 만들어 좀 더 부드러운 질감을 자랑하고, 등나무의 줄기로 만든 라탄은 단단한 형태를 만들기 좋다.

손잡이에 스카프를 감은 라피아 소재 토트백은 돌체앤가바나. 라탄 소재 바스켓 백은 랄프 로렌 컬렉션. 라피아 소재로 제작한 버킷백은 지방시.



TINT SUNGLASSES

다채로운 색의 선글라스 렌즈는 스타일링을 넘어 뜻밖의 효과를 선사한다.
노란색은 야간 시야를 선명하게 만들고, 푸른색은 음식을 맛없어 보이게 해 다이어트할 때 좋다.
초록색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며, 붉은색은 단파장의 광선을 흡수하고 차단해
주변 환경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다.

노란색 렌즈의 캐츠 아이 선글라스는 네이티브 선즈 x 사카이. 사각 프레임 블루 렌즈 선글라스는 젠틀몬스터.
투명 프레임 선글라스는 올리버피플스 by 룩소티카. 블랙 뿔테 선글라스는 하이칼라.

SET STYLIST 전예별 ASSISTANT 차세연 COOPERATION 네이티브 선즈(privateeyesandtrackers.com),
돌체앤가바나(3442-6888), 룩소티카(501-4436), 샤넬(080-200-2700), 젠틀몬스터(1600-2126),
지방시(546-2790), 로렌 랄프 로렌(6004-0220), 파비아나 필리피(6960-0831),
프라다(3218-5331), 하이칼라(010-2654-7371), 헬렌카민스키(3444-6593)



Cool And Shiny

여름이면 생각나는 톡 쏘는 술처럼 청량한 기운이 감도는 화이트 골드 주얼리.

EDITOR HONG HYESUN PHOTOGRAPHER JACOB MYERS



모자이크 기법으로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공한 '미모사 플렉시' 브레이슬릿은 다미아니.
고딕 건축양식의 섬세한 디테일을 구현한 '오페라 골드 이터넬레' 링과 허니콤 기법으로 제작해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톨레' 이어링 모두 부첼라티.
데이지꽃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마르게리타' 링은 다미아니.



원뿔과 스터드가 어우러져 기하학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선사하는 '클래쉬 드 까르띠에' 링은 까르띠에.
 뱀의 관능미와 강렬함을 형상화한 '세르펜티 바이퍼' 브레이슬릿은 불가리.
 오디오 케이블 잭에서 영감을 얻은 모티프에 긴 체인을 결합해 목걸이와 팔찌 등으로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잭 트리플 랩'은 부쉐론.



얼음 조각을 모티프로 삼은 '아이스큐브 퓨어' 네크리스는 쇼파드 황실을 상징하는 허니콤 형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비 마이 러브' 브레이슬릿은 쇼메. 다이아몬드 밴드와 클루드 파리, 더블 고드룬 모티프를 연결한 '콰트로' 레디언트 화이트 골드 이어 클립은 부쉐론. 알파벳 T의 공계 뿔은 실루엣을 부각한 '티파니 T 와이어 바' 이어링은 티파니. 소다유리를 사용해 만든 글로리 G 작가의 고블릿 잔은 솔루나리빙.

ASSISTANT 차세면 COOPERATION 까르띠에(1566-7277), 다미아니(515-1924), 부쉐론(02-3277-0148),
 부첼라티(6905-3490), 불가리(6105-2120), 솔루나리빙(736-3618), 쇼메(6905-3350), 소파드(6905-3390), 티파니(6250-8620), 피아제(1668-1874)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2개의 밴드가 자유롭게 회전하는 '포제션' 오픈 밴글 브레이슬릿은 피아제.
 원형 리지 밴드에 움직이는 볼트 모티프를 더한 '에크루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은 까르띠에.
 뉴욕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구조물의 역동적 에너지를 담은 '티파니 하드웨어'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링크 브레이슬릿은 티파니.

Hotel Vacance

아직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여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호텔이 준비한 다채로운 미식, 풀, 객실 패키지를 눈여겨보자.

ROOM



포시즌스 호텔 서울, 키즈 포 올 시즌스

어린이와 여행에도 간편하게 짐을 꾸리고 싶은 이들을 위한 제안. 객실 내 키즈 텐트를 무료로 세팅 해주며, 아기 침대와 욕조는 물론 키즈 목욕 가운 같은 다채로운 물품을 구비했다. 또한 객실마다 유기농 모슬린 면 담요를 제공한다. 최근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10층 키즈 라운지를 리뉴얼하며 유럽 수공예 원목 토이 브랜드 그라팻의 다양한 장난감을 배치했다. 9월 12일까지. 6388-5000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본 오브 네이처

환경에 덜 죄책감을 느끼고 싶은 이들을 위한 선택. 100%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칫솔 등 친환경 어메니티를 사용할 수 있고, 슈퍼 푸드 샐러드 등 베지테리언을 위한 조식 룸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유기농 녹차 농장의 다도 체험권도 제공한다. 10월 31일까지. 064-780-8000



플라자 서울, 하프글램핑

도심에서 무더위를 식히며 8시간 동안 합리적으로 호텔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프글램핑은 캠핑용품만 배치한 객실에서 치킨 등 세프가 마련한 간단한 인룸 다이닝을 즐길 수 있고 수영장과 피트니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 8월 31일까지, 주중 한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771-2200

파크 하얏트 서울, 로맨스 앳 더 파크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누리며 연인과의 기념일을 추억하고 싶다면 예약을 서두를 것. 도심 전망 뷰 객실에서 루이나 브뤼 샴페인과 케이크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이슬 보디 워시와 스크럽도 제공한다. 일~목요일은 오후 2시까지 레이트 체크아웃이 가능하며, 별도 요청 시 플로리스트가 객실을 꽃으로 데코레이션해주거나 꽃다발을 준비해주는 점도 장점. 2016-1100





서울신라호텔, 문라이트 시네마

달빛 아래 수영을 즐기며 영화를 볼 수 있는 야외 시네마. 매일 저녁 8시부터 대형 스크린을 통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그린북>과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주연을 맡은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를 격일 교대로 상영한다. 어번아일랜드 입장권을 보유한 투숙객은 누구나 즐길 수 있다. 10월 3일까지. 2233-3131



그랜드 조선 제주, 랫츠 피크

루프톱 수영장에서 한여름 밤의 열기를 즐기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 루프톱 풀 피크 포인트에서 중문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맥주와 스파클링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디제이의 감각적인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성인 전용으로 운영한다. 064-738-6600

그랜드 하얏트 호텔

남산에서 내려다보는 도심 풍경과 함께 나무로 둘러싸인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뒤, 먹음직스러운 그릴 요리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구성이다. 야외 레스토랑 그릴 스테이션에서 참숯으로 구운 양고기와 해산물 등을 바비큐로 맛볼 수 있다. 797-1234



POOL & SPA



롯데호텔 제주, 씬머 포유

일반적인 야외 수영장과 달리 사계절 온수 풀로 운영되는 '해운'은 수영을 즐기지 않는 이라도 휴양지 설렘을 느끼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풀 카페에서 버거, 치킨 등 음식과 칵테일을 즐길 수 있으며 펠트빙과 어망에서 추출한 원사로 만드는 이탈리아 친환경 수영복 브랜드 캠펠의 부티크 매장을 운영한다. 1577-0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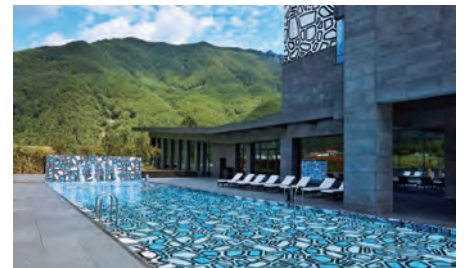
썬비치 양양 & 삼척, 프라이빗 비치

해외 휴양지의 비치 클럽처럼 프라이빗하게 바다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넉넉한 간격으로 파라솔과 카바나를 배치했으며 아이스박스, 비치 타월을 제공해 편리하다. 양양은 스페인, 삼척은 그리스 산토리니를 모티브 삼아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1588-4888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뽀띠 이비자

소수 정예 모임을 기획 중이라면 호텔 최고층에 자리한 야외 테라스에서 풀 파티를 여는 건 어떨까? 선베드와 저쿠지를 갖춘 문바의 야외 테라스에서 칵테일이나 샴페인 같은 주류와 페어링할 수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옵션으로, 블루투스 스피커와 포터블 TV를 배치해 음악과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9월 30일까지. 2250-8000



파크로얄 리조트 앤 웰니스, 아웃도어 스파

강원도의 맑은 공기 속에서 자작나무를 형상화한 영국의 설치미술 작가 리처드 우즈 Richard Woods의 작품을 감상하며 야외 스파를 만끽할 수 있는 곳. 미온수로 운영해 부담 없이 스파를 즐길 수 있으며 저쿠지, 인도어 스파와 사우나도 운영한다. 033-560-1111

GOURMET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피자힐 와인 나이트

한강의 일몰과 야경을 감상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와인과 마리아주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모션.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사랑받아온 워커힐 피자 레스토랑 피자힐의 야외 테라스에서 와인 4종과 맥주 한 잔, 콤비네이션 피자를 비롯한 육류와 생선, 수프 등 3종의 타파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구성이다. 매주 목요일 저녁, 10월 13일까지. 1670-0005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더 그레이트 흥연 코스 요리

원기 보충이 필요한 여름, 영양소가 풍부한 해산물로 조리한 보양식을 광동식 코스로 즐길 수 있다. 전복을 넣은 쇠고기 누룽지탕, 유린 소스를 더한 민어튀김, 중국식 전복냉면과 통해삼 요리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중국 본토 출신의 왕시보 셰프가 4가지 덤섬을 제안한다. 727-7620



안다즈 서울 강남, 오로라 칵테일

갈증을 해소해주는 청량한 음료가 당기는 계절, 조각보에 자리한 '바이츠 앤 와인'에서는 보기만 해도 향긋하고 맛도 새콤한 칵테일 6종을 선사한다. 제철 과일인 자두로 만든 칠러, 파인애플 젤리를 얹은 펀치 젤로, 증류식 소주인 KHEE 소주와 티를 조합한 보랏빛 칵테일 '오로라' 등 다채로운 음료를 경험할 수 있다. 2193-1191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서머 브런치 스페셜

휴양지에 온 듯한 이국적인 요리를 제안하는 브런치 뷔페. 꽃게로 감칠맛을 돋우는 크랩 요리는 칠리, 갈릭, 블랙 페퍼 중 고를 수 있으며, 레몬크림 카놀리 등 상큼한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8월 28일까지. 2250-8000



파크 하얏트 서울, 코너스톤 브런치

통영에서 공수한 문어, 강원도 찰옥수수 등 로컬 국내산 식재료를 이탈리아 가정식으로 선보인다. 애피타이저로는 랍스터, 농어 세비체 등 풍성한 해산물 플래터를 즐길 수 있으며 파스타 및 양갈비, 우럭과 연어 등을 메인 요리로 맛볼 수 있다. 와인 한 잔과 이탈리아식 디저트까지 완벽한 한 끼를 제공한다. 매주 주말, 9월 4일까지. 2016-1258



안다즈 서울 강남, 애플망고 빙수

망고 과육과 얼음 사이로 녹진한 마스카르포네 크림을 채워 달콤함을 배가한 빙수. 앙금과 연유는 입맛에 맞게 곁들여 먹을 수 있으며 망고를 주 재료로 만든 오페라 케이크와 찹쌀떡 등을 세트 구성해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 플레이트에 서브해 한 상 차림처럼 정갈하게 즐기기에 좋은 구성이다. 2193-1191



파라다이스시티, 토바 빙수

말린 방울토마토와 바질을 조합한 독특한 맛의 빙수. 국내산 대추토마토를 말린 뒤 꿀에 절여 토마토 매리네이드로 만들고, 바질 셔벗, 우유 얼음과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얹어 어디서든 맛보지 못한 빙수를 완성했다. 사이드로 부라타 치즈를 함께 제공하는데, 빙수에 얹어 먹으면 더욱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다. 1833-8855



콘래드 서울, 샤인머스캣 빙수

새콤달콤한 샤인머스캣과 청포도 셔벗, 모스카토 그라니타와 우유 얼음을 얹어 완성했다. 보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 플레이팅에 드라이 아이스를 활용한 덕에 온도를 더욱 차갑게 유지해 오래도록 시원하게 맛볼 수 있다. 7월 8일부터 한정 수량 판매한다. 6137-7000

DESSERT

그랜드 조선 제주, 수박 빙수

해마다 빠지지 않고 수박 빙수를 선보이는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는 올해도 고당도 수박의 과육을 듬뿍 얹어 달콤한 맛과 수분감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빙수를 마련했다. 본관 1층에 자리한 라운지 바에서 제공하며, 은은한 수박 향미를 느낄 수 있는 수박 브레드가 빙수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064-738-6600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3가지 빙수

입안에서 툭툭 터지는 식감의 팍핑 캔디와 함께 페이스트리 셰프가 매일 만드는 망고 젤라토를 얹은 제주 애플망고 빙수, 푸른빛을 내는 블루퀴라소, 아몬드 크림블 등 토핑의 매력을 살린 오션빙수, 코코넛 젤라토와 허니콤을 얹은 코코넛빙수까지 각기 다른 매력의 빙수 3종을 '더라운지'에서 즐길 수 있다. 9월 18일까지. 6282-6268

위커힐 호텔앤리조트, 4가지 빙수

해마다 다양한 시그니처 빙수를 선보이는 위커힐. 고소한 인절미와 콩고물이 조화로운 콩고물빙수와 옹과 등 열대 과일 및 제철 과일을 듬뿍 올린 생과일 빙수 이외에 카스텔라를 얹은 빙수, 우유와 팔의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우유빙수 등 4가지 빙수를 제안한다. 1670-0005



시그니엘 부산, 애플망고 빙수

제주산 애플망고의 풍성한 과육과 치즈 케이크, 바닐라아이스크림을 곁들여 완성했다. 맨 위를 금가루로 장식해 사진 찍기 좋은 비주얼을 연출한 것은 덤. 해운대 바다 풍경을 눈에 담으며 시원하게 맛볼 수 있으며, 오직 팔과 얼음, 인절미로 구성된 정통 팔빙수도 제공한다. 051-922-1212



프립 임수열 대표
일 이후의 시간을
디자인하는 플랫폼

130만여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취미·여가 플랫폼 '프립'. 90% 이상의 유저가 2030세대인 프립은
요즘 MZ세대가 어떻게 경험의 세계를 확장하는지 목격할 수 있는 지표다.

퇴근 후 무엇을 하며 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이토록 열광하던 때가 있었다. SNS 자기소개란에 직업 대신 취미를 나타내는 이모지를 내걸고, 명함 대신 라이프스타일 키워드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 매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공개하는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인의 여가 시간은 평일 3.8시간, 휴일 5.8시간으로, 2016년 대비 평일과 휴일 약 40~50분가량 증가했다. 늘어난 시간과 함께 회사 밖에서 자신을 찾고 싶은 이들은 취미 활동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다.

취미·여가 플랫폼 프립은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액티비티를 다룬다. 저마다 시간을 향유하는 방식이 다르듯 다이빙, 등산, 베이킹, 여행 등 다루는 프로그램의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종류와 기간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점이 프립만의 특징이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클래스를 통해 배우며 자기 계발을 할 수도, 삼삼오오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호스트의 아이디어에 따라 ‘혼펜(혼자 펜션에서 묵고 식사를 같이 하는 모임)’ 같은 참신한 기획도 만나볼 수 있다.

‘삶의 질’이라는 키워드와 법정 근로 시간에 대한 논의가 오가던 시기인 2016년, 임수열 대표는 프립 앱 서비스를 론칭했다. 그는 창업 전, 사회적 기업과 소셜 커머스 업체 ‘그루폰 코리아’의 초창기 멤버를 거쳤으며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도 일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좋은 직장을 구하고도, 왜 삶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을까 싶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보다 쉽게 삶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과거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친밀한 이들과 모이는 폐쇄적 구조의 모임 말고 기획도, 참여도 개방적인 구조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 것이 시작이었다. 축구, 등산 등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그는 초창기에 직접 모임을 기획했다. “소비 그 자체로 자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경험이 더해져야 하는 시대니까요. ‘진짜 나에게 좋은 게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했습니다.”

프립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액티비티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호스트가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해 등록하고, ‘대원’이라 불리는 참가자들은 호스트가 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참여한다. 호스트는 강사처럼 프로그램을 통솔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데 집중한다. 현재 등록 호스트 1만8000명, 누적 프로그램 2만8000여 개를 넘어서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이용자의 90%가 2030세대라는 것. 관계 맺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되고 자아에 집중하며 다양한 도전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킨 결과다. “궁극적으로 여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은 사회는 구



프립 유저들이 함께 러닝을 즐기거나 서핑을 하며 프로그램을 즐기는 모습. 아웃도어, 쿠킹, 공예, 스포츠 등 카테고리 따라 프로그램이 나뉜다.



성원의 삶의 방식이 획일화된 사회라 생각해요. 소득이 늘어나고 같은 금액의 돈을 소비한다고 해도 특정 브랜드의 재화 쇼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장의 땅을 사서 가드닝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프립의 주된 이용자이자 잠재적 타겟이예요.” 팬데믹에도 매해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연이어 투자를 받은 프립은 현재 로컬 문화에서 다양성을 발굴하고 있다. 제주시와 MOU를 맺었으며,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와 협업하며 숨겨진 지역의 특색을 신선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중이다. 가령 승마 클럽이 아닌 제주의 말 농장에서 말과 교감한다거나, 단종 유배지로 잘 알려진 강원도 영월에서 ‘디지털 디톡스’ 같은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등 아직 플랫폼에서는 실행 전이지만 신선한 아이디어가 오가는 중이다. 곧 해외를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면 발리 같은 외국에서도 서핑, 요가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호스트를 모집할 예정. 브랜드 혹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어처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산업화 시대에 인간은 주 7일을 일했는데, 이제는 주 3일 근무를 논하고 있죠. 시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점점 노동시간이 줄어든 미래에는, 세분화된 방식으로 자기만의 고유한 취향을 찾는 일이야말로 ‘인간다움’과 맞닿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취향을 발견하고 여가를 즐기는 게 낯설던 세대 또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며 스스로 여가 시간을 디자인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임수열 서울과학고를 거쳐 카이스트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6년 3월 취미·여가 플랫폼, 프립의 앱 서비스를 론칭했다. 국내 여가 시장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신념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현재 프립은 매해 2배에 가까운 유저가 늘었으며 누적 투자 금액 총 180억 원을 달성했다.

EDITOR 안서경 PHOTOGRAPHER 이석영

Wish List

화창해진 날씨만큼 잦아진 야외 활동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들뜨는 7월, 각 분야의 기자들이 눈여겨본 이달의 신제품을 소개한다.

GUCCI × ADIDAS

럭셔리와 스포츠 브랜드 간 협업이 날로 진화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각종 컬래버레이션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구찌와 아디다스가 서로의 DNA를 공유한 '익스퀴짓 구찌' 컬렉션도 그 중 하나.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늘 강조하던 "의복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오롯하게 증명한 아이템으로 가득하다. 1970~1980년대 스타일의 솔 더백과 클로그에 큼지막한 아디다스 로고를 더하고 우아한 실크 소재 스카프에 스포티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이식하는 식이다. 단순히 이슈와 유행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서로의 문화를 나누려는 시도가 더욱 돋보인다. EDITOR 홍혜선

클로그 161만 원, 가방 258만 원, 실크 트윌리 스카프 34만 원, 구찌(1577-1921)



DIOR FOREVER COUTURE CUSHION

프랑스 휴양지 리비에라의 해 질 녘 황홀한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은 '디올 포에버 꾸뛰르 쿠션'을 소개한다. 디올 하우스에 큰 영감을 선사하는 디자이너 자중해를 상징하는 블루 스트라이프 패턴에 크리스찬 디올 로고를 각인해 파우치 속 액세서리로 손색이 없는 것은 물론, 디올 하우스의 신념에 따라 리필이 가능한 패키지로 고안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 피부 결점을 자연스럽게 가리고 고급스러운 광채를 선사하는 것은 물론 피부를 하루 종일 촉촉하게 유지한다. 올여름에만 만날 수 있다.

EDITOR 이지형

'디올 포에버 꾸뛰르 쿠션' 9만5000원, 디올(080-342-9500)



NDH 30

1928년 베를린에서 탄생한 프리미엄 음향 장비 브랜드 노이만에는 항상 꿈, 전설, 명가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NDH 30'은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스튜디오 마이크, 고급 모니터 스피커 분야에서 명성과 기술력을 쌓아온 노이만의 두 번째 헤드폰. 2019년 발표한 브랜드 첫 헤드폰 'NDH 20' 이후 3년 만이다. 다이내믹 38mm 트랜스듀서를 탑재해 전 음역대에서 왜곡 없는 선명하고 깨끗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음향의 방향성을 정확히 찾아내며 깊이를 분명히 표현하는 기능은 특히 공간 음향이나 VR 등의 몰입형 콘텐츠 제작에서 빛을 발할 것.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에 브랜드 포인트 컬러인 오렌지를 잊지 않았다. EDITOR 한동은

노이만 'NDH 30' 가격 미정, 젠하이저(1544-1699)



THE LUMINIZING FACE ENHANCER

부드러운 텍스처로 피부에 광채를 더하고 그윽한 피부 톤을 연출하는 '루미나이징 페이스 인핸서'를 만나보자. 고도의 기술력으로 담아낸 오팔 퍼 파우더가 어느 각도에서도 생기 있게 빛나는 피부를 연출한다.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아르간 커널 오일 등의 스킨케어 보습 성분이 피부에 가볍게 밀착되며 자연스러운 광을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쿨 톤부터 웜 톤까지 다양한 피부 톤에 맞춰 4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EDITOR 정두민

'루미나이징 페이스 인핸서' 13만 원, 글레드뵤 보떼(080-564-7700)



CONSTELLATION

최근 브랜드의 글로벌 앰배서더로 선정된 배우 한소희의 저력 덕분에. 여성 워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오메가가 새로운 '컨스텔레이션' 워치를 소개했다. 스테인리스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케이스 지름 28mm 모델로, 블러시 로즈와 파츨리 블라섬, 셀레스티얼 블루와 그린 말차 등 4가지 파스텔컬러로 구성해 산뜻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풍긴다. '4061'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베젤에 새긴 로마자 인덱스에는 다이얼과 동일한 색상을 적용했다. EDITOR 최윤정

'컨스텔레이션' 워치 480만 원, 오메가(6905-3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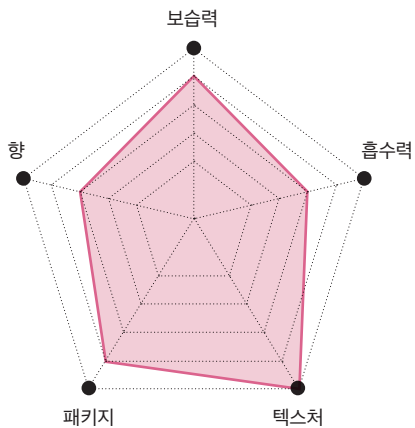
Multiple Mist

촉촉한 수분은 기본, 다양한 스킨케어 효과를 겸비한 페이스 미스트. 4명의 뷰티 피플이 직접 사용하고 평가해봤다.



지방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프렙 앤 셋 글로우 미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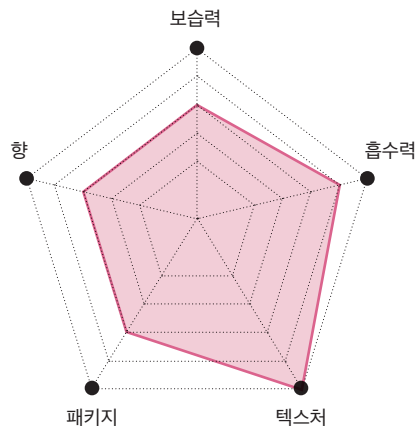
가볍게 분사되는 텍스처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한다.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며 촉촉함과 광채 효과가 오래 유지되는 것이 장점. 미스트임에도 높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겸비해 피부에 많은 제품을 바르기 부담스러운 여름철에 이거 하나만 뿌려도 좋을 듯하다. 다만 피부 컨디션에 따라 걸도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 사용할 때는 양 조절에 신경 쓸 것.



남가연 패션 & 뷰티 콘텐츠 에디터. 건강 타입이라 수분감 있고 피부에 은은한 윤기를 더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피부를 답답하게 하지 않는 가벼운 텍스처를 선호하는 편.

샹테카이 '씨스크린 30'

미세한 미스트가 피부에 골고루 도포되면서 빠르게 흡수되는 점이 인상적이다. 가벼운 수분감이 느껴지지만 물에도 강해서 휴가철 액티비티 스포츠를 즐길 때도 유용할 듯하다. 보디 같은 넓은 범위에 사용할 때 특히 효과적이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다양한 피부 고민이 있는 한자들을 마주하는 사람으로서 올여름 휴가 아이템으로 꼭 사용해보길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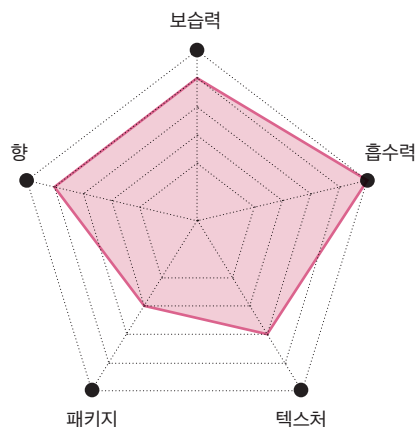


김홍석 보스 피부과 전문의. 바쁜 일정 탓에 휴대가 간편하고 피부에 빠르게 수분을 채워줄 아이템을 찾는 편이다. 어느 피부에 사용해도 안전한지 제품 성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프레쉬 '로즈 인스턴트 하이드레이션 미스트'

평소 보습을 위해 세안 후에도 신경 쓰는 편인데 미스트 제형의 장미수가 산뜻하게 피부에 흡수되는 점이 만족스러웠다. 기능적으로 수분을 빠르게 채우는 것은 물론 은은한 로즈 향이 심리적으로도 피부에 생기가 되살아나는 느낌을 준다. 휴대용 사이즈에 쿨링 효과가 뛰어나 여름철 야외 활동에도 적합하다. 미스트는 건조한 계절에만 쓴다는 편견을 깨준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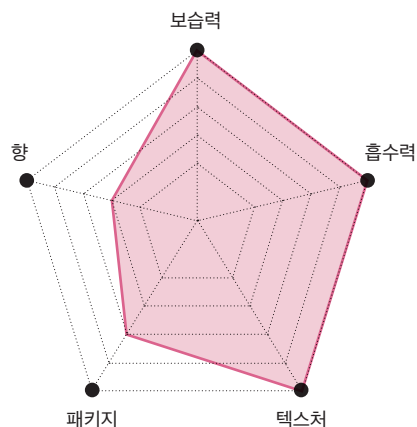


안민균 아모레퍼시픽 프라그런스팀 구말 파리 브랜드 매니저. 건강한 피부의 기본은 수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하루 종일 촉촉한 수분감을 선사하는 제품을 선호한다.



꼬달리 '뷰티 엘릭시르'

무더운 여름에는 모공이 확장되면서 과잉 분비되는 피지가 늘 고민이다. 늘어진 모공을 세안부터 스킨케어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더라도 완벽하게 케어하기는 어려운데, 이 제품을 스킨케어의 처음과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니 기초 제품들이 더 잘 스며들고 모공도 정돈되었다. 부드럽게 흡수되지만 강력한 쿨링감과 은은한 페퍼민트 향이 매력적이라 여름에 사용하기 제격이다.



황령경 메이크업 아티스트. 속 땅김이 있는 건성 피부로 유·수분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계절 내내 피부에 열감이 많아 쿨링 효과를 지닌 제품을 주로 구매한다.



2022 Pizza Road

피자 마니아라면 주목! 개성 가득한 피자를 선보이는 신상 피자 숨을 소개한다.

오리지널 이탈리아 요리를 만나는, 살티모카

- 📍 용산구 한강대로76길 11-36 1층
- 🕒 일요일 휴무,
월~목요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0시,
금~토요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1시,
브레이크타임 오후 3~5시
- ☎ 749-1469

남영동 골목에 이탈리아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살티모카'가 자리한다.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공부한 전필중 오너 셰프는 이곳에서 나폴리, 로마, 볼로냐 식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소개한다. "나폴리 스타일 파니니, 로마식 조각 피자, 어니언 수프, 볼로냐 라자냐를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식자재는 당연히 현지 것만을 고집합니다. 한국인에게만는 낯설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잘 알려진 최고의 마리아주를 알고 싶어요." 요리 외에도 이탈리아 햄과 치즈, 올리브 등을 개수나 무게로 판매 중이다.

살티모카의 조각 피자는 로마 스타일이지만 나폴리식 dough를 접목해 식은 후 먹어도 속이 촉촉하다. '코르바라' 피자는 당도가 높은 코르바라산 토마토를 직접 수입해 사용한다. 근사한 토마토 풍미에 걸맞은 프로볼로네 치즈와 부팔라 치즈 그리고 바질을 함께 즐기며 재료의 신선함을 가득 즐길 수 있다. 전 셰프가 가장 애정하는 마리아주를 즐길 수 있는 피자는 '모르타델라와 스트라차텔라'다. 짭조름한 모르타델라 햄과 진한 우유 풍미의 스트라차텔라 그리고 고급스러운 고소한 향의 피스타치오가 어우러진다.



이탈리아 식전주 '아페롤 스피리츠'와 '코르바라' 피자, '모르타델라와 스트라차텔라' 피자.



테라스에서 즐기는 피자와 와인, 델리카테슨

- 📍 마포구 토정로3길 19
- 🕒 화요일 휴무, 오전 11시 30분~오후 11시, 브레이크타임 오후 2~4시 (주말 브레이크타임 없음)
- ☎ 0507-1444-3141

6여 년간 합정동 골목에서 인근 주민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골목 피자 펍 '슬라이스 오브 더 문'이 낮이나 밤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델리카테슨'으로 새롭게 돌아왔다. 독일어로 샤르티리나 치즈, 와인 등을 판매하고 맛볼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이름답게 피자, 샌드위치, 햄버거 등의 다이닝 메뉴와 내추럴 와인을 선보인다. 야외 테라스는 라임색 철제 의자와 테이블로 화사하게 꾸며, 음식의 맛과 한가로운 공간 분위기를 한층 배가한다. 누구나 좋아할 맛의 '미트러버' 피자에는 토마토소스 베이스에 페페로니, 다진 고기, 베이컨 등이 들어간다. '치즈버거' 피자는 이름 그대로 치즈버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메뉴. 약간 매콤한 칠리소스에 버거 패티에 들어가는 다진 고기, 체더치즈와 모차렐라 치즈 그리고 할라페뇨가 더해진다. 내추럴 와인 리스트는 약간의 산미와 달콤함을 품고 있어 짭조름한 메뉴에 감칠맛을 더하는 제품들로 구성했다. 7월부터는 자체 수제 맥주 '데일리 라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근 '에일크루' 브루어리와 협력해 제작한 맥주로 보디감이 가볍고 시트러스 풍미가 오래 지속된다.



1



2

- 1 시그처 피자 '미트러버'와 피자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내추럴 레드 와인 '리틀 테레사'.
- 2 치즈버거 맛이 나는 '치즈버거' 피자. 다진 고기와 2가지 치즈, 할라페뇨, 적양파가 들어간다.



흥겨운 바이브, 차일드 오 피자

- 📍 성동구 연무장18길 14 1층
- 🕒 월요일 휴무, 화~일요일
오전 11시 30분~오후 9시 30분,
브레이크타임 오후 3시 30분~5시
- ☎ 070-4197-1234

미국 학교의 카페테리아에 온 듯, 아니면 어느 흥겨운 뮤직비디오 현장 속에 들어온 듯 컬러풀하고 이국적인 인테리어의 '차일드 오 피자'. 이곳은 내면의 흥을 끌어올리는 곳이다. 언제나 즐거운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즈 & 로지스의 대표곡 '스위트 차일드 오 마인'에서 이름을 따왔다. 3층으로 올라 가면 분위기가 반전된다. 농구대와 비치파라솔로 꾸민 청량한 색감의 운동장이 색다른 기분을 선사한다. 차일드 오 피자의 굿즈를 구입할 수 있는 자판기와 위트 있는 메뉴 이름, 경쾌한 목소리의 직원들까지, 유쾌한 바이브가 곳곳에 녹아 있다.

차일드 오 피자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자극적이고 풍족한 조합의 토핑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수제 도에 가장 중점을 뒀다. 구황작물이라는 뜻의 '엘로우 크롭스'에는 랜치 베이스의 화이트소스에 옥수수, 짭조름한 해시 브라운, 달콤한 고구마튀김이 올라간다. 입안 가득 기분 좋은 풍성함이 느껴진다. '불고기, 플리즈' 피자는 달짝지근한 불고기와 신선한 시금치의 조합이 마치 불고기쌈을 싸 먹는 듯한 이색적인 인상을 안겨준다.



1 다양한 구황작물이 듬뿍 올라간 '엘로우 크롭스'.

2 달짝지근한 불고기와 시금치의 조화가 좋은 '불고기, 플리즈' 피자.

DESIGN SPOT

#오늘의숨 #디자인스팟

디자인 스팟은 <럭셔리>, <럭셔리M>, <행복이 가득한 집>, <디자인>, <스타일 H> 등을 발행하는 디자인하우스의 에디터와 마케터가 선별한,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상업 공간입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플래그십 스토어, 편집매장 등 콘셉트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모아 각 매체의 지면과 SNS를 통해 소개합니다. 디자인 스팟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공식 인스타그램(@designspot.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쉬어가는 시간, YGY

- 📍 성동구 왕십리로 96 2층
- 🕒 매일 오전 11시~오후 10시
- ☎ 6052-3324

맥주 한잔에 피자 한 조각. 성수동에서 가볍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YGY'로 향하자. YGY는 나폴리 스타일의 얇고 쫄깃한 도에 미국식 재료를 올린 2인 사이즈의 피자를 낸다. 같은 재료와 맛의 조합으로 피자뿐 아니라 햄버거, 샌드위치 등 다채로운 메뉴를 맛볼 수 있다. '필리 치즈 스테이크' 피자는 볶은 쇠고기와 양파에 특제 치즈 소스를 듬뿍 얹은 시그너처 메뉴. 식초와 설탕에 절여 새콤달콤한 파프리카가 식감은 물론 감칠맛을 더한다. 멕시코 음식을 연상시키는 비주얼의 '칠리' 피자도 추천한다. 짭조름한 비프 칠리 소스와 슈레드 치즈, 매콤한 할라페뇨의 조화에 자꾸 손이 갈 것. 자신을 성수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 밝힌 이남곤 대표는 '윤경양식당', '윤경' 등 서울숲 인근의 인기 식당을 운영 중인 F&B 베테랑. 그는 YGY가 성수동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생동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주류 역시 성수동 베이스의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의 맥주를 마련했다.

EDITOR 한동은 PHOTOGRAPHER 이경옥·김은지



- 1 '필리 치즈 스테이크' 피자과 성수동 베이스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의 맥주.
- 2 '칠리' 피자는 멕시코의 짭조름한 맛과 할라페뇨의 궁합이 좋다.



BEAUTY BECOMING A LUXURY

천편일률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매력을 이끌어내는 곳. '더 이다 의원'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개성과 아름다움을 되찾다

똑같은 눈에 똑같은 코, 똑같은 페이스 라인까지... 정형화된 아름다움에 익숙해진 물개성의 시대에 살다 보니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간혹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병원을 보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전문가의 꼼꼼한 상담이 필요하다. 더 이다 의원은 개인에게 꼭 필요한 시술을 제안해 아름다움의 가치를 되찾아준다. 개인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해 자신감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인다. 보디와 페이스를 동시에 시술해 2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트리니티 프로그램을 비롯해 처진 피부를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레이저 리프팅과 실 리프팅, 오목조목한 페이스 라인을 완성하는 디자인 필러로 젊고 생기 있는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다. 여기에 매끄러운 보디로 만들어줄 레이저 제모와 글래머러스한 가슴과 힙, 슬림한 몸매로 가꿔주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 당당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1인 원장 체제의 꼼꼼한 관리

더 이다 의원의 허선영 원장은 아름다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쟁 업체는 다른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아닌,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미용 성형은 의사의 실력과 디자인적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에 작은 디테일에서 품격이 달라지는 명품의 영역과 매우 유사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울 권리가 있다. 화장을 하거나 예쁜 옷을 입는 이유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다. 이런 이유로 허선영 원장은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시술받기를 원하는 부위를 먼저 물어보며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 20여 년간 쌓인 노하우로 그 사람만의 매력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한다. 나만의 숨겨진 매력을 찾고 싶다면 더 이다 의원에 방문해보자. 빛나는 명품처럼 아름다움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다.

FREELANCE EDITOR 최주현 PHOTOGRAPHER 이기태
COOPERATION 더 이다 의원(533-6695)



FREDERIQUE CONSTANT GENEVE



LIVE YOUR PASSION
CLASSICS
MOONPHASE DATE
frederiqueconstant.com

프레드릭 콘스탄트 5년 무상 공식서비스는 공인된 매장에서 구입한 홀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1899-7848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02)3213-2256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22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146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287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1970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 031)8072-1870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8023-2176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755

롯데면세점 소공점 02)759-6771 월드타워점 02)3213-6862 코엑스점 02)3484-9641 부산점 051)810-3861 신라면세점 서울점 02)2230-1480 신라아이파크면세점 02)490-3681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02-6370-4075 부산점 051)775-3264 현대백화점면세점 02)2142-6170

 **한국심장재단 후원**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판매금의 일부를 한국심장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CHANTECAILLE

샹테카이



Future Skin Cushion Skincare Foundation

바이오 리프팅 세럼+의 핵심 성분을 그대로 담은 샹테카이 쿠션 파운데이션